

仁德濟世의 象牙塔, 仁濟大學校

白 樂 院

(仁濟大 總長)

1. 創立 精神과 設立 背景

본 仁濟大學校가 設立된 것은 불과 10년 전인 1979년이다. 그러나 그 母體가 되고 있는 白病院은 半世紀가 넘는 57년의 歷史를 가지고 있다. 본교를 소개함에 있어 먼저 간단히나마 白病院의 歷史를 일별하지 않을 수 없음은 白病院의 設立者 白麟濟 박사의 “仁術濟世 — 仁術으로써 世上을 救한다”는 創立 精神에 따라 본교가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커왔고 또한 앞으로도 쉬임없는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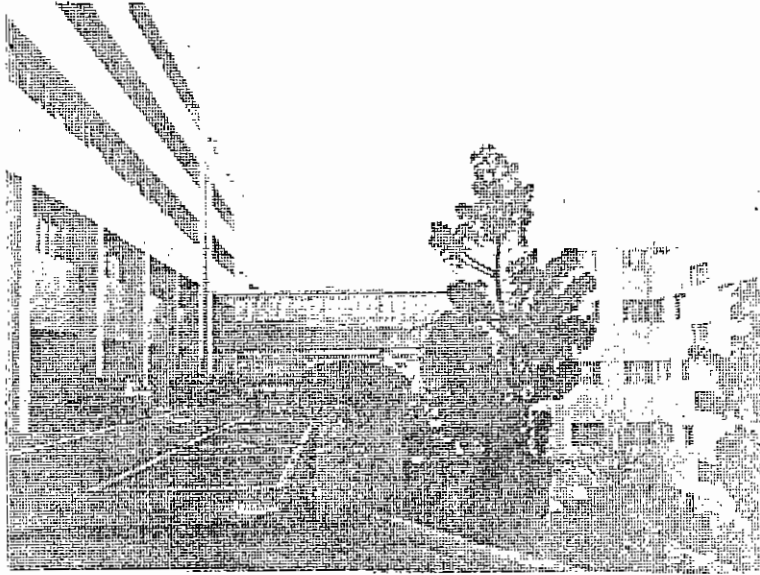
白病院 設立者 白麟濟 박사는 우리나라 醫學界의 泰斗로서 日帝 支配下 암흑기에 현 서울大의 전신인 京城醫學專門學校 재학 시절부터 抗日運動에 참여하여 투옥의 경력을 갖게 된 선각자였고 애국자였다. 白박사는 京城醫專을 졸업한 후 젊은 의학도로서 2회의 獨逸 留學을 거쳐 母校인 京城醫專에서 敎育과 研究에 전념하였다. 外科醫師로서 활약하면서도 뜻은 항상 조국 광복과 국가 경륜에 있었으며 언제나 이 땅에 Mayo Clinic 과 같은 세계적인 醫療·研究·敎育을 겸한 機關을 세워 보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仁術으로써 世上을 구한다는 仁術濟世의 理念은 이 때에 싹이 텄다.

이윽고 1932년 白박사의 선배인 우에무라(植

村)씨가 日本으로 돌아감에 따라 현 서울 白病院 자리에 있던 우에무라 외과 병원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白박사의 仁術濟世 理念은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白病院의 歷史는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41년 白박사는 京城醫學專門學校의 의과 주임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동안 위탁 경영하여 오던 우에무라 외과 병원을 새로운 면모의 白麟濟外科病院으로 開院하여 응지의 초석들을 마련하여 갔다.

1945년 조국 광복과 더불어 白박사의 꿈은 큰 나라를 펴기 시작하였다. 1946년 이 땅에 최초로 純粹한 民族 資本과 民間 資産으로 이루어진 公益法人이 태어났으니 白麟濟 박사가 全私財를 기부하여 설립한 財團法人 白病院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동란으로 設立者 白박사는 남북되고 말았으며 白病院은 초토화되었다. 이제 設立者의 남북은 상흔이 되었지만, 지금도 白病院의 院訓과 仁濟大의 校訓으로 이어지고 있는 白박사의 가르침 ‘正直·誠實·勤勉’을 실천하려는 後裔·後進들의 피나는 노력은 白病院 재건과 仁濟大의 출범을 보고야 말았다.

1951년 金熙圭, 尹德善, 全鉉五, 申鉉球, 白樂院씨 등이 모여 폐허가 된 白病院의 터에서 재건의 삼을 들었다. 그후 10년, 白病院의 옛 모



◀ 1979년에 開校한 仁濟大學校는 외형의 확장보다는 내면의 충실을 우선으로 하며, 시대적 흐름에의 무조건적인 편승을 마다하고 大學의 正道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습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지만 낙후된 施設로 設立者의 뜻을 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61년 白樂院 박사가 院長으로 취임하여 金慶植, 金憲鐘, 徐相完씨와 병원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마침내 1969년 종합 병원 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현 서울 白病院을 기공하였다. 그 해 말 현재 學校法人 仁濟學園 理事長인 白樂朝 박사가 獨逸 留學을 마치고 귀국해 병원 현대화에 합력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그 歷程은 無에서 有를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어 문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이 때가 우리 機關으로서의 가장 어려웠던 死活의 岐路였다. 그러나 만년을 무릅쓰고 1972년 150 병상 16개 진료과를 둔 종합 병원 白病院이 그 문을 열었으며, 1975년에는 350 병상 규모의 종합 병원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白樂朝 理事長과 白樂院 院長을 중심으로 한 모든 白病院 家族의 아름다운 協同에 의한 合作品이다.

設立者의 뜻을 이루고 말겠다는 後裔·後進들의 노력은 이에서 멈추지 않았다. 1978년 釜山市 釜山鎮區 開琴洞에 釜山 최대인 500 병상의 釜山 白病院을 기공함과 아울러 서울 및 釜山 白病院을 부속 병원으로 하는 醫科大學의 설립을 신청하였으며, 이어 學校法人 仁濟學園과 白中央醫療院을 발족시켰다. 1979년 3월 마침내 仁

濟醫科大學이 開校되어 設立者의 育英의 뜻이 그 첫 열매를 맺었으니 1932년 白病院 태동 후 47년이니 근 半世紀만이였다. 仁術濟世의 創立理念에 따라 校名을 仁濟醫科大學으로 하였으며 설치 학과는 의학과 하나에 정원 80명이였다.

이제 본교의 歷史는 뒤에서 소개하겠거니와 서울 白病院은 500 병상, 釜山 白病院은 750 병상 규모로 확장·발전되었으며, 서울 上溪洞에는 금년 7월 개원을 목표로 700 병상의 병원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設立者의 後裔·後進들은 발전을 거듭할 때마다 그 남기신 뜻을 일부나마 이루어가고 있다는 감개와 아울러 그 이름이 '正直·誠實·勤勉'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데에 더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 略 史

본교는 아직도 그 歷史가 일천하며 알다시피 규모에 있어서도 綜合大學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작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設立者의 後裔·後進과 현 經營陣은 물론 전 仁濟家族은 "仁濟大學은 그 발전을 기약함에 있어 외형의 확장보다는 내면의 충실을 우선하며, 시대적 흐름에의 편승을 마다하고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大學의 正道를 확고히 한다"는 데 대하여 남다른 긍지

를 지니고 있다.

開校 2년 후인 1981년에 옛 駕洛國의 도읍지인 金海市 漁防洞에 11만 평이 넘는 校地를 확보하고 새 교사를 신축하면서도 우선 의학과의 頂上化를 위하여 타과의 증설을 開校 후 5년간이나 유보하였으며, 1983년에는 초창기의 만년을 무릅쓰고 獎學 事業을 위한 仁濟研究獎學財團의 설립을 무엇보다 앞서 시행한 것만으로도 仁濟家族의 긍지가 결코 虛張이 아님은 명백할 것이다. 여하튼 1979년 3월 釜山市 釜山嶺區 開琴洞의 현 釜山 白病院과 醫科大學 교사에서 의예과 1학년 80명의 입학식과 초대 학장 全鍾暉 박사의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仁濟大學校의 歷史는 그 첫 발을 내딛었다. 1981년에는 金海市 漁防洞에 11만 평의 새 校地를 확보, 그 이듬 해인 1982년에는 의예과를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1983년에는 仁濟醫科大學 교수 일동이 大學 본래의 사명인 교육과 학술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獎學財團의 설립을 발의하여 교수, 외래 교수, 백병원 동문 및 일부 사회 독지가의 적극적인 힘조로 자본금 5천 2백만 원의 仁濟研究獎學財團이 설립되었으며 理事長에는 張起呂 박사가 추대되었다. 설립 5년 후인 1988년 현재 자본금은 2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獎學 金으로 지급된 금액만 하더라도 5억 7천여만 원에 수해 인원은 연 1,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1983년 9월 문교부로부터 仁濟醫科大學을 仁濟大學으로 校名 변경 인가와 자연과학부 3개 학과(화학, 물리학과, 생물학과)의 증설 인가를 받으므로 본교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984년 10월에는 4개 학과(전산통계학과, 가정관리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가 증설되었으며, 그해 11월에는 大學院(의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되었다. 1985년 10월에는 식품영양학과, 1986년 10월에 수학과, 환경학도가 증설된 데 이어서 1987년 10월에는 미생물학과, 아동학과, 보건학과, 의용공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7개 학과가 증설되었다. 1987년 11월 釜山·慶南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保健大學院이 신설되었으며(보건관리학과, 환경관리학과) 아울러 大學院에 박사과정(의학과 정원 10명)이 신설되고 석사과정도 정원이 28명으로 증원

되었다.

1988년 10월 마침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와 신설과 아울러 綜合大學校로 轉換하여 1979년 仁濟醫科大學으로 출범의 뜻을 올린 지만 10년만에, 1984년 仁濟大學으로 그 면모를 새로이 한 지 5년만에 仁術濟世의 창립 정신을 펼쳐 그 응지의 아람찬 열매들을 거둘 또하나의 커다란 주춧돌을 놓게 되었다. 1989년 금년 봄 綜合大學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보건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의 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보건대학원의 2개 대학원을 갖춘 본교는 초대 총장에 60평생을 오로지 설립자의 뜻을 받들어 白病院과 仁濟大學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한 白樂院 박사가 취임함에 따라 仁術濟世의 창립 정신을 仁德濟世로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내일의 仁濟大學校, 세계의 仁濟大學校를 위한 모든 仁濟家族의 합심과 협력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現 況

본교는 4개 단과대학 21개 학과에 3,000여 명의 학부 학생과 일반대학원 2개 학과에 33명, 보건대학원 2개 학과에 71명 및 박사과정에 17명의 대학원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다. 앞으로 본교가 자리잡고 있는 金海 지역의 특성에 맞고, 創學 理念에 따른 의학 분야와 보건 환경 분야에 적합한 학과를 증설하여 지역 의료 발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한 그럼으로써 產學協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학 분야의 학과를 증설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임교수 수에 있어서는 매년 엄격한 공개 초빙과 심사를 통하여 우수한 교수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교수 49명, 부교수 35명, 조교수 92명, 전임강사 57명 등 총 233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 중 박사 112명, 석사 104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10.9명에 불과하여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施設·設備면에서도 법정 기준에 대하여 校地 335%, 기본 시설 107%, 교수 연구 시설 102%, 실험실습 기계 기구 및 시설 65%, 도서 73%,

도서관 열람석 942 석 116%, 기숙사 240 석 등을 현재 확보하고 있어 연구와 편학을 위한 외형적 조건에서도 안정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향후 1만 2천 명을 수용하기 위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이미 확정하여 1989년 4월에는 2,600여 평 규모의 학생회관을 착공하였다.

특히 醫科大學의 경우에는 부속 釜山 白病院 750 병상, 서울 白病院 500 병상과 아울러 1989년 7월 개원 예정인 서울 上溪 白病院 700 병상 등 총 2,000여 병상의 현대적 시설의 부속 병원을 갖추므로써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의 공헌은 물론 전국민 의료 보험 실시를 앞두고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에서 잠깐 기술하였지만 본교는 설립 초창기부터 외연상의 양적 발전보다 내면적인 질적 향상에 우선한 大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수의 연구 및 학술 개발 사업과 학생 獎學 事業에 주력하고 있다. 1982년 설립된 仁濟研究獎學財團에서는 지난 5년간 5억 7천만 원을 獎學金으로 지급한 데 이어 금년도에도 1억 6천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 이미 확보된 기금 25억 원을 바탕으로 仁濟研究獎學財團이 본교의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發展 計劃

본교는 1989 학년도인 금년부터 綜合大學로 전환되었다. 이에 때 맞추어 建學 理念도 綜合大學에 걸맞게 創立者의 뜻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仁術濟世에서 仁德濟世로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仁은 基督敎의 사랑과 佛敎의 慈悲를 내포하면서도 한층 더 東洋의인 깊은 뜻을 품는다. 德은 문자 그대로 큰 德으로 학생들에게 仁과 德品을 심어주고 본교의 校訓인 正直·誠實·勤勉을 학풍으로 키워 인간 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을 펼치고자 한다.

본교의 1988 학년도 예산 120여억 원 중 등록금 수입은 30억 원에도 미치지 않아 본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는 30%를 밑돌고 있다. 바꾸

어 말하면 지난 1년간 財團의 학교 전출금은 학교 제정의 70%를 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財團 支援率뿐 아니라 學生 對比 教授 確保率, 施設·圖書 確保率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건이 100이 넘는 우리나라 私學 중에서 5위 이내의 최상위권에 들고 있는 사실은 본교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수 확보율뿐 아니라 교수 진도 일반적으로 젊은 편으로 거의 전부가 국내의 一級 大學의 엘리트 출신이므로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有數의 大學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찬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학생 수준도 점점 상향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大學 運營者의 학교 발전과 교육 이념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가 대학 발전의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것이다. 至誠이면 感天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는 萬古不易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수 2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반 綜合大學이 본 大學의 목표는 아니다. 학과 수 30여 개에 학생 수 1만여 명, 대학원·특수 대학원까지 합하여 1만 2천 명 이내의 대학으로서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일급 대학으로(별써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일급 대학에 접근되고 있다), 또 생명 과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계 기초 과학 육성에 역점을 두고, 인문·사회계에서도 각종 연구소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특징을 살리면서 우리나라 학계 발전과 인덕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다. 仁濟大 출신이라던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인간성에 있어 정직·성실·근면의 교훈이 몸과 마음 속에 스며 있고 인덕을 겸비한 인격자를 양성하는 것이 본교의 교육 목표이다.

교육은 단시간 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교직원 이 관심과 성의를 기울여 노력하는 데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과실을 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느긋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무릇 大學은 東西古今의 長久한 人類 歷史를 통하여 인류가 창조한 가장 고귀한 소산이며, 대학의 으뜸가는 사명은 바로 진리 탐구와 인재 양성이다. 물론 사회 봉사도 대학의 무시할 수 없는 사명일 것이다.

眞理의 탐구는 학문 연구의 자유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연구의 자유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루어진 결과만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연구의 열매는 교육과 직결되어 학생들에게 심

어 주어야 될 것이다.

본교의 歷史는 10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57년 전 이 땅에 仁術濟世의 뿌리를 내린 白病院 설립자 白麟濟 박사의 創立 精神을 이어가고 있는 본교의 運營者와 仁濟家族은 大學은 研究中心이 되어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수준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진실과 진실이 부딪칠 때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大學의 正道를 지켜가며 大學人의 자세를 바로 할 때 仁濟大學校의 희망찬 미래는 보장되어 있음을 전 仁濟家族은 알고 있는 것이다. *